

## 니오몬

당당한 위용을 보여주는 니오몬(二王門)은 닌나지 절의 입구입니다. 닌나지 절 그 자체의 역사는 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, 이 니오몬은 오닌의 난(1467~1477년)으로 절의 대부분이 소실된 이후 이루어진 대규모 재건 사업 때에 지어진 것입니다. 긴 역사 속에서 광범위한 수리와 보존 복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니오몬은 건립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방문객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. 닌나지 절의 니오몬은 그 장대한 위용으로 인해 지온인 절, 난젠지 절 문과 더불어 ‘교토 3대문’으로 나란히 평가받고 있습니다.

니오몬은 신도들을 절에 맞이할 뿐만 아니라 악령과 도둑, 불법(佛法)의 원수가 되는 적을 퇴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, 결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 좌우 양쪽에 선 흠형(吡形)과 아형(阿形)의 수호신 ‘니오(二王)’입니다. 험상궂은 표정에 근육이 우람한 이 두 수호신 상은 많은 불교 사원의 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겉모습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, 아형은 입을 벌리고 있고 흠형은 입을 닫고 있어서 두 수호신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. 아형의 입에서는 마치 ‘아’라는 외침이, 흠형에서는 ‘흠’이라는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.